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모든 시민 혜택

전주시, 전국 최초 일반시민 위한 보험 가입... 교통취약자 이동권·시민 안전권 확보

앞으로는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 시민은 민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노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등록장애인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 시 늘어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혜택 대상자를 기존 등록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

시민으로 확대해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내용은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고 25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만 원이었던 보장내용이 올해

부터는 사고당 최고 500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며,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상 편리한 보험 청구를 위해 전용콜센터를 운영중이며, 보험상담 및 청구시 TPA코리아(02-6952-5133)로 문의하면 된다.

도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빈발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지급 받은 수급자 가구에게는 개별안내문을 보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경찰서·사회복지시설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내용을 홍보하는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단 한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왔으며,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회가 더 중요한 만큼 도로에 적치물을 없애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교통약자 소중한 권리 행사 돕는다

전주시설공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차량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교통약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이지콜 택시로 투표장 이동을 지원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교통약자 지원부는 사전투표 기간인 이달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지콜 택시를 매일 4대씩 투입한다.

본투표가 실시되는 10일에도 이지콜 택시 총 8대를 투입해 교통약자 투표권자의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운임을 받지 않는다.

이지콜센터(063-271-2727)로 사전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 택시

투표일 또는 본투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정치경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선거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호주 멜버른시와 국제교류 강화

호주 멜버른 시의원, 우범기 시장 예방... 협력사업 등 논의

전주시가 호주의 문화교육 중심도시인 멜버른시와의 국제교류에 나섰다.

시는 2일 필립 리우 시의원이 국제 우호 교류 및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대의협력을 담당하며 멜버른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필립 리우 시의원은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국제 우호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 유력인사 초청 사업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된 멜버른시 의원은 호주 멜버른 총영사 측의 추천을 받아 이날 전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간 멜버른과 예술놀이 분야



필립 리우 호주 멜버른 시의원이 2일 전주를 찾아 우범기 시장과 양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국제 우호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등 문화예술교류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전주문화재단과 호주 멜버른시 산

하 공립기관인 아트플레이는 그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멜버른시 의원은 이어 전주한옥마을과 전주문화재단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시와 멜버른시의 문화·교육 국제협력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도시인 전주와 호주의 교육문화 중심도시인 멜버른시가 교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펼쳐질 양 도시 간 국제교류에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산하기관, 민간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논의를 위한 전주미래도시포럼에도 꼭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멜버른시는 호주의 문화·교육·스포츠 중심지로, 지난해 영국 글로벌 경제분석센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선정한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성인지 교육 실시

전주시는 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의 정형 컨설턴트와 노현정 컨설턴트가 강사로 초빙돼 △성인지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정책개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6개의 자치법규와 27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특성과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격차 등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가져

전주시는 2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전주시 중소기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업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할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교육에서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령 이해 및 관련 동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여수·전남, 해외 마이스 관광객 유치 나서

전주시가 더 많은 해외 마이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 전남 여수시와 함께 공동 유치전에 나섰다.

시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3박 4일간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관광재단과 공동으로 태국과 베트남, 싱가포르의 3개국 MICC전문 여행업체 임원진 11명을 초청하는 마이스 캠퍼어를 공동

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주를 찾은 초청 대상자들은 1박 2일 동안 전주한옥마을과 전주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등 전주시 마이스 인프라를 둘러보고 여수로 이동할 계획이다.

시는 방문단이 전주에 머무는 동안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의 전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각국의 마이스 행사를 위한 코스 개발과 마이스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시는 오는 4일에는 여수에서 진행되는 해외 마이스 유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전주시의 마이스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내용과 인프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단체에 대해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행사장 임차료 △공식 오찬·만찬 △행사 진행을 위한 인쇄물 제작 등의 명목으로 최대 2500만 원의 행사개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단, △전주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및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